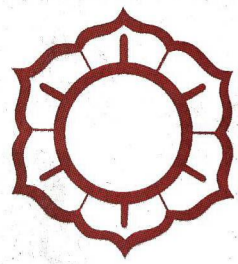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2년
11월 1일
금요일
제38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
을 깨치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몇 일체 사물을 알려고 구할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려고 하기 이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담요 한장 사람 온정 가득

서울 경인교구 아우라지 방문 자비의 손길

태풍 루사의 피해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서울 경인교구는 지난 9월16일 태풍 루사의 수마가 활취고 간 강원도 정선군을 방문하여 담요 200채(시가 500여만원)를 전달하였다.

김원창 정선 군수는 "직접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구호물품을 전달해 주신 총지종에 감사드립니다"며 "현재까지 정선에는 700mm이상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 9명, 이재민 1,799세대 4,8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날 수해물품 전달식에는 서울 경인교구장 해정(관음사 주교)과 총지사 법등 주교, 사회복지재단 서동석 국장 및 박현수 교무가 참석하였다.

한편 해정 서울 경인교구장은 "수재민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군수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작지만 총지종 교도들의 따뜻한 정성이 힘내

라"는 격려를 하였다. 또한 정선에 살고 있는 서울 관성사교도 백철화 보살님의 자재분이 피해를 입어 직접 방문하여 격려와 물품을 전달하였다.

자원봉사의 손길도 전해졌다. 법천사(주교 시정)교도 김분순 보살님은 강원도 삼척에 직접 방문하여 10여일 이상 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수해물품도 손수 전해주는 등 교도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불교총지종은 한국방송공사에 수재의 연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으며, 부산 경남 교구(정정심 관음사 주교)도 500여 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각 사원별로 수재민들이 자원봉사와 성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총지사 신정화(김은숙 회장) 교도들의 집에 안 입고 안 쓰는 옷과 이불을 모아 직접 수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3대 통리원장 법공 종사 선출

제 60회 추계 강공 회향, 내년 예산 50억원 인준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 총지사에 봉안



제 60회 추계 강공회가 지난 10월 21일~24일(3박4일) 동안 전국스승님들을 대상으로 총지사와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번 추계강공회에서 총기 32년 예산안 심의와 인준, 제 13대 통리원장 선출, 양부 만다라 봉안불사등 굵직한 불사를 연이어 봉행했다.

통리원장 선출에 앞서 열린 승단총회에서는 성화사 주교 법공, 만보사 주교 법성, 국광사 주교 우승, 밀인사 주교 원송 4명의 후보가 선정되어 각축을 벌였으나 승단총회의 투표 결과 성화사 주교 법공종사가 선출이 되어 특정 종령의 임명과 중앙총회 인준을 거쳐 제13대 통리원장에 선출이 되었다.

신임 법공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전 승단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스타일은 조용히 수행하고 교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시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승단의 발전에 헌신하라는 법계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조전은 총지사 본당 2층에 장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정대성사의 교상과 사상의 자료 및 일상용품과 종조 대비식에서 나온 수많은 사리도 전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조님이 이땅에 세운 밀교의 정신의 육성법문과 친필 원고도 새롭게 펴내 많은 교도들이 쉽게 볼 수 자료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임 법공 통리원장은 수행과 정진에 각 심의 통과하였다. 또한 제 103회 승단총회와 78회 중앙총회를 연석으로 열어 제 13대 통리원장에 현 성화사 주교 법공 종사를 선출하였다.

통리원장 선출에 앞서 열린 승단총회에서는 성화사 주교 법공, 만보사 주교 법성, 국광사 주교 우승, 밀인사 주교 원송 4명의 후보가 선정되어 각축을 벌였으나 승단총회의 투표 결과 성화사 주교 법공종사가 선출이 되어 특정 종령의 임명과 중앙총회 인준을 거쳐 제13대 통리원장에 선출이 되었다.

신임 법공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전 승단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스타일은 조용히 수행하고 교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시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승단의 발전에 헌신하라는 법계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조전은 총지사 본당 2층에 장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정대성사의 교상과 사상의 자료 및 일상용품과 종조 대비식에서 나온 수많은 사리도 전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조님이 이땅에 세운 밀교의 정신의 육성법문과 친필 원고도 새롭게 펴내 많은 교도들이 쉽게 볼 수 자료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저한 진언행자이며 1983년 전법관정 수계를 받고 통리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총의원, 원의회, 10대 통리원장직을 수행하여 행정과 수행에 두루 존경과 추앙을 받았다.

이번 추계강공에서는 지난 5년동안 심혈을 다한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 봉안불사를 회향봉안하였다.

특정종령은 법에서 "불교 가운데서도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고 대승의 모든 교리를 종합 완성하고 거기에 고도의 수행체계를 갖춘 것이 밀교이며 또한 밀교는 고도로 발달한 상징주의 철학이면서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교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한 눈에 보여 주는 것이 만다라입니다"고 만다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전 종도들이 일심으로 서원 정진한 결실이 이제 우리 총지종에서는 밀교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양부 만다라를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최초로 조성하여 본산에 봉안하고 영구 보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만다라 조성에 힘써주신 종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교도 대중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만다라 조성에 노력하신 모든 분들을 치하하며 종단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종조 원정대성사 뜻 길이 길이 22주기 종조 멸도절 성대한 봉행



지난 9월 8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종조멸도 22주기 추선 불사를 봉행했다.

종조전 시설 추진위원회 사업 박차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 길이 빛내는 시설 건립

제1차 종조전 시설추진위원 회의가 지난 10월24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특정 종령 및 위원 9인 전원 참석하여 종조전 시설건립에 대한 구체적 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성 만보사 주교는 "종조전 시설건립은 단순히 종조님을 모시는 건물이 아닌,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 그리고 정통밀교수행의 정신을 기

리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특정 종령은 "불교총지종은 조상을 모시고 조상불공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창종주에 대한 종조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한없이 반성이 된다.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원정대성사님의 모든 유품과 유물 그리고 그분의 정통밀교를 적박한 이 땅에 세운 정신

을 길이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전원이 여타 종단의 조사전 시설을 알아보기 위한 탐방을 하였다.

종조전은 총지사 본당 2층에 장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정대성사의 교상과 사상의 자료 및 일상용품과 종조 대비식에서 나온 수많은 사리도 전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조님이 이땅에 세운 밀교의 정신의 육성법문과 친필 원고도 새롭게 펴내 많은 교도들이 쉽게 볼 수 자료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총지종 승단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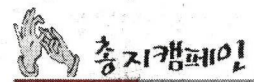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 그리고 종단의 화합

종조 원정대성사님이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교화와 포교발전에 일대 도약을 위한 승단 대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종단산하 전 스승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1년 11월 13일(수)~15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 일정표
- 13일(수) : 승단 총회1
- 14일(목) : 통리원장 이·취임식, 시법사 헌공불사, 승단 총회2
- 15일(금) : 승단총회3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양성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흔히 부모들은 사내는 사내답게 계집아이는 계집아이답게 키우려는 것이 아주 좋은 자녀교육법이라고 생각해왔다. 특히 유교문화 속에서 수 백년 동안 남자를 구분하도록 강요된 교육을 받아온 우리네로서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려 왔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으로도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산드라 벤텐 성에만 치중된 인간보다 양쪽 성의 특성,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적 특성(용감하고 논리적이고 추진력이 있다는 등)과, 여성적 특성(남을 잘 돌보아 주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자애롭다는 등)을 모두 갖춘 사람은 훨씬 더 다양한 자극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 그때의 상황에 요구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적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 전국 컴퓨터 경진 대회의 초등학교 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어린이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다. 5학년이 다니고 있는 이 남자 어린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누나와 동생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수를 놓으면 정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를과 수실을 사다가 수를 놓는 것도 좋아한다는 내용이었다.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열어 갈 때, 좋아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잘하는 것도 많아지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고,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다. 이 어린이는 바로 우리가 그 또래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적응 수준과 자아 실현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참으로 흐뭇하고 믿음직한 마음으로 바랄 수 있는 양성적 어린이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양성적인 기질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지능과 창의력이 높고 적응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이들이 자라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자신감이 있고, 사회적 압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섬세하게 마음을 써줄 줄 아는 양성적 어른이 될 것이다.

성의 역할과 성격 고정관념이 인위적이며 필연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남녀의 행동을 뚜렷이 구별되는 성 역할 규범은 일찍부터 남녀 어린이 모두의 발달과 가능성을 제한하고, 나아가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제한한다. 우리들의 자녀들 모두가 변화하는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부모로서 바라다면 각자가 자신의 성별에 매임이 없이 스스로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정에서 남녀 성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도현

2733 ~ 2753

사설

신임 총리원장의 당선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1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추계 강공회'에서 종단의 대소경중의 현인들이 원만히 종결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단속원불사로 진행되어왔던 양부만다라의 완성은 물론이고, 3개월간 공식 중이었던 자리에 신임 총리원장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려운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중지(衆智)를 모았던 승단 스승님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그 동안 종단에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로인해 종단의 종사자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 고통들을 안겨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일련의 결정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그간의 고통을 빨리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비록 적은 갈등은 있었지만 그 상처들은 빠른 시간내에 치유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최우선적으로 승단대화합의 중무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긴 허탈감과 상대적인 소외감에 빠져 있는 도반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끌어 안고 마음적으로 보살펴 주는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신임 총리원장이 당선소감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종단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총리원장직을 맡게 된 이상 그 책임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책임감이 높은 만큼 소신있게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책임감이 무거운 만큼 심사숙고하는 중무행정, 공사(公私)의 구분,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중무행정이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공백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사안들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여 정상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종단의 발전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승단 전체의 성원과 지지, 헌신적인 봉사가 뒤따랐을 때 가능하다. 전 승단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다시 일어서는 삼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참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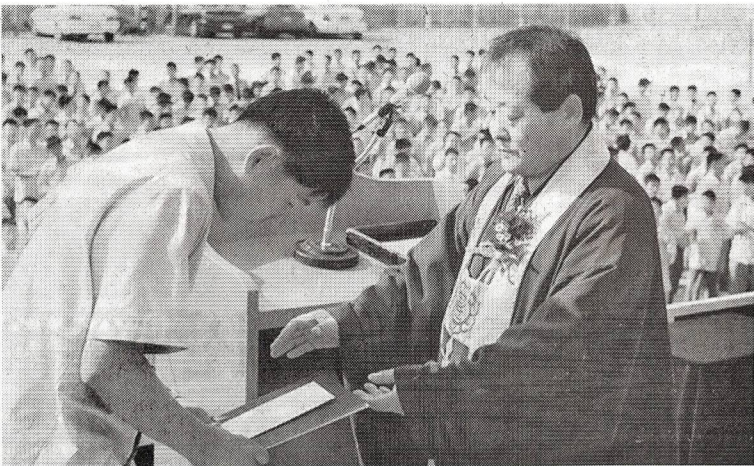
위덕대의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의 진각종 비하 발언에 대해 양 종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며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행정의 최고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진각종 비하 발언에 분노와 서글픔을 느낀다.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군포교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군법사(군승장교)의 수급은 반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각종립학교 위덕대 불교학과에 대한 국승과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출발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한국불교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출가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이번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불교 풍토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이가 아닌 차별이 존재한다. 굳이 불교교단의 성립사를 논하지 않더라도 출가 수행자만 홀로 있는 불교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만큼 세상은 다변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재가불교의 역할은 하루가 다르게 중요시되고 있다. 불교는 깨달음을 구하는 종교이며 깨달음을 이르기 위해 모든 우정 무정에 대한 경계를 두지 말라 하였다. 그렇기에 불교는 빈부귀천과 지위고하, 남녀노소,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가장 평등한 종교이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한사람이라도 더 미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언제나 청정하게 모든 중생들을 출가자들과 똑같이 좋은 도반으로 대하여 주었다. 수행자란 모름지기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을 이른다. 그래서 수행자의 삶에는 높고 낮음 없이 항상 하심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정대 승님의 발언은 참다운 수행자의 말이라 보기 어렵다.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던 이번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참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천만 불교도들에게 출가, 재가의 참다운 공생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참회를 바란다.

종립학교 동해중 현대식 건물로 새단장

도약과 응비의 나라 35회 개교기념일



종립학교 동해중이 여류방학동안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여 9월말 준공 예정을 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교실바닥 개수 29개실, 이종벽 설치 9실, 복도 중장개수 32실, 방난방 설비 24실, 급식설치 1실을 개 보수하였다.

총공사비 7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공사는 교육청 전액 지원과 설계비(학교부담)지급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석동훈 실장은 "이번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의 이미지 개선 및 시설의 현대화로 인해 편안한 공부여건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에 대비하여 완벽한 난방과 냉방시설을 갖춰다"고 밝혔다.

또한 2, 3층 교실의 외벽을 내부에 단열재를 붙이고 다시 벽을 쌓은 이중벽으로 시공을 하였으며, 급식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하고 양과 질이 풍부한 급식을 제공되어 질 것으로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25일 동해중학교는 제 35회 개교기념일 행사를 봉행 하였다.

수성 이사장, 경원 이사, 전임 김병준 교장 및 어머니 회장, 학내대표, 총 동창회장 등 건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경중 학교장은 "여러분의 선행과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여 지역사회의 선봉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가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보다 씩씩하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구김살 없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자"는 기념사를 하였다.

또한 수성이사장은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진 이때를 기회삼아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자"는 치사를 하였다.

또한 총리원장 "똑같은 것이 상황에 따라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된다. 상황에 따라 인연 따라 옳고 나쁜 것이 되듯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어둠에 보는 학생이 없길 바란다"는 축사를 경원 정각사 주교가 대독하였다.

이날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장기 근속교사 남영옥, 임종옥, 한문술, 김영생 선생님에게 표창과 부상, 박계만 경비원에게 학교장 표창, 그리고 권지홍, 이상운, 윤호석, 조대길, 이정환 학생에게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세계 밀교의식 한자리에

불교 진각종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시연회

불교 진각종이 종조인 회당(梅堂) 대중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의 밀교(密敎) 의식 시연회를 연다.

밀교는 7세기 대승불교의 화엄사상을 기초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불교의 한 갈래. 몽골과 인도, 일본 불교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진각종과 불교총지종이 밀교로 분류된다.

10월 18, 19일 진각종 종무원에서 열리는 시연회에서는 한국의 혜정대장사(진각종 교육원장), 티베트의 니창 린포체, 몽골의 단장 람, 일본의 다카하시 류덴(高橋隆天·진언종) 나카시타 조이호(仲下瑞法·진언종) 등 고승들이 참석해 그간 일련에 공개되지 않았던 밀교의식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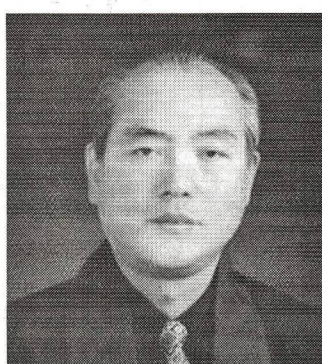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밀교 의식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호미'(homa)의식. 불(火)과 밀교의 법구·공양물 등을 바치는 의식으로 불(佛)과 수행자의 합일을 기원하며 의식 도중 발생하는 불꽃과 연무를 통해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여 해탈



일본 평간사의 증의호마 장면.

진각종 측은 "밀교의 맥을 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져 내려온 호마 의식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시연회가 우리나라 밀교의 전통을 되살리고 밀교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은 10월 17, 18일 총인원에서 '회당 사상과 종교적 실천'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연다. 회당이 창종한 진각종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밀교사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대회가. 나래쉬만 네팔 트리브바한데 교수와 허일범 진각대 교수 등이 발표한 다.

제13대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법공종사 인터뷰



법공 총리원장

축하합니다.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종단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의 수반 격인 총리원장이 지난 7월부터 공식으로 있어 종단행정에 구심점이 없어 매우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불교총지종의 독특한 전통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승단화합, 불사 범요집 통일 등 내부 결속 사업에 역점

저는 미약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승단의 뜻을 모아 종단의 화합과 건강한 종풍진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승단의 다양한 의견이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건강한 토론의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서 전 승단의 뜻이 무엇인지 또 승단의 어렵고 힘든 점을 해결하여 일선교화현장에서 노력하는 스승님들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펴겠습니다.

일의 선후와 경중 완급을 조절하여 차분히 임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본골격을 만드는 결연한 심정으로 일하겠습니다.

과거 원장님은 종단의 중요 행정경력이 풍부하고 또 행정의 최수반인 10대 총리원장직을 수행하였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위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일일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인생, 스승의 자질함양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종헌 중흥 개정, 시스템정비 등 숭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사업에 보다 내실을 꾀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집을 키우고 장을 치는 것만 생각하고 입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 내실을 튼튼히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승단화합, 불사 범요집 통일 등 내부 결속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승단화합, 불사 범요집 통일 등 내부 결속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승단화합, 불사 범요집 통일 등 내부 결속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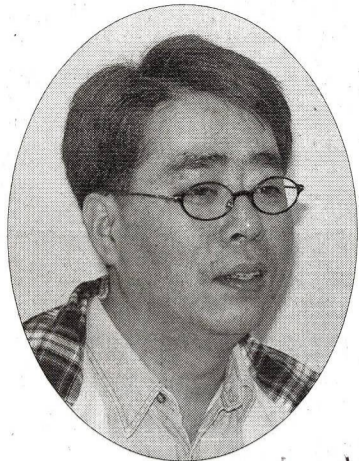
승단화합, 불사 범요집 통일 등 내부 결속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승단화합, 불사 범요집 통일 등 내부 결속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2년 8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천사	곽동규	10,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벽룡사	박덕서	10,000	실지사	이상배	10,000	정각사	정희연	5,000
개천사	손 식	20,000	밀인사	신동의	10,000	벽룡사	박옥련	3,000	실지사	이숙례	6,000	정각사	조춘자	10,000
관성사	박영자	3,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벽룡사	박은숙	5,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황영숙	50,000
관성사	박현숙	20,000	밀인사	안옥진	30,000	벽룡사	박홍렬	10,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박옥란	5,000
관성사	이순삼	30,000	밀인사	육근희	5,000	벽룡사	오기순	20,000	실지사	일월정	5,000	제석사	법상인	250,000
관성사	이혜원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벽룡사	이희자	5,000	실지사	장근도	20,000	지인사	류운자	9,000
관성사	최혜선	20,000	밀인사	이혜성	10,000	벽룡사	제애덕	6,000	실지사	정란채	5,000	지인사	신도희	51,000
관성사	해 정	10,000	밀인사	이희원	10,000	벽룡사	조화자	4,000	실지사	정정애	10,000	총지사	오상수	60,000
관성사	현정원	100,000	밀인사	정정희	10,000	부·경신도회	2,500,000	실지사	주영채	3,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관성사	홍순화	20,000	밀인사	허을순	5,000	수인사	김봉기	20,000	실지사	최 윤	10,000	총지사	장수복	10,000
관성사	황성녀	20,000	백월사	김강미자	20,000	수인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최 환	10,000	총리원	인 선	2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백월사	김석순	5,000	수인사	원 봉	20,000	실지사	최영혜	10,000	홍국사	강문석	10,000
기로원	대자행	2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수인사	이호순	15,000	실지사	최채숙	10,000	홍국사	강한빛	10,000
기로원	법장화	20,000	백월사	이동성	5,000	수인사	최공자	20,000	정각사	강길순	5,000	후원회	김진	20,000
기로원	상지화	20,000	백월사	이민자	20,000	실보사	배갑순	5,000	정각사	김삼열	10,000	가업안내	무명씨	5,000
덕화사	서영순	10,000	백월사	이용운	5,000	실보사	이은아	5,000	정각사	김옥엽	20,000	후원회	무명씨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백월사	차병노	10,000	실지사	김선자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후원회	무명씨	10,000
밀인사	김덕자	10,000	백월사	한귀환	5,000	실지사	박미선	10,000	정각사	박정화	5,000	후원회	배운택	10,000
밀인사	김원태	5,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성대영	2,000	정각사	박훈휘	10,000	후원회	이순자	5,000
밀인사	김은숙	10,000	법천사	안정애	5,000	실지사	송무영	5,000	정각사	배숙지	10,000	후원회		
밀인사	남방자	15,000	법천사	임선순	5,000	실지사	송우섭	5,000	정각사	유옥희	5,000	후원회		
밀인사	박길선	5,000	법천사	전상숙	3,000	실지사	실천제	10,000	정각사	윤원숙	10,000	후원회		
밀인사	배태임	5,000	벽룡사	김종선	3,000	실지사	이명환	2,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후원회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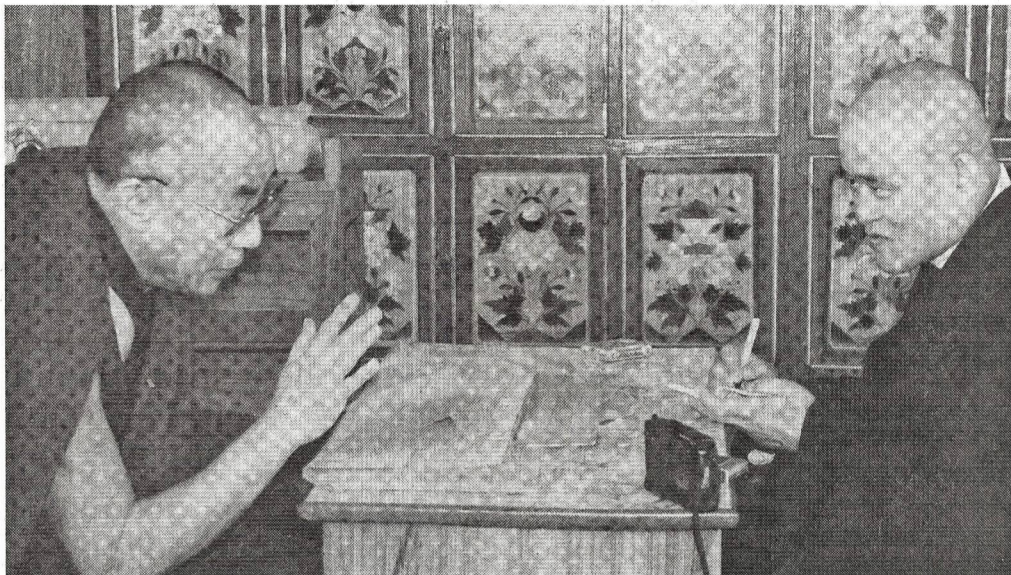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방한, 이제 무슨 이유로 막을 것인가

를 편 대표적인 곳이 외교통상부였다. 정부는 2000년도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하던 당시 중국의 CDMA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농민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쿼터량을 대폭 늘린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러나 수백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CDMA 규모는 십수억달러 정도에 불과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이 시기에 정부가 중국산 냉동마늘 수입 쿼터량을 대폭 늘려 농가피해를 불러오고, 그러면서도 협상결과 자체를 숨겨온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펼친 경제논리는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산품

였다. 외교보복, 경제보복의 논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4월 달라이 라마가 대만을 방문하면서다. 당시 중국은 합대를 대만 근처에 전진 배치하여 무력시위를 펼치면서까지 대만을 압박했다. 중국으로선 소수민족문제와 핵심인 티베트와 대만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용감하게(?) 대만의 부

대만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환대하였으니 아무리 사대애에 쫓겨 외교관들이었지만 우리 외교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태도였다. 달라이 라마 방문 며칠 전까지 기를 쓰고 막으려던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의 경제인들과 경제관료들 최대규모의 통상시찰단을 베이징에 초청했다. 예정된 일정이었겠지만 중국의 실용주의는 다시 유감없이 입증됐다.

지난해 2001년에는 4월과 7월 두차례의 합의 정부와 화의 정부를 더 밀접하면서 은근 슬쩍 내세운 것이 남북문제였다. 남북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 핵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변이었다. 남북문제는 지난



〈정몽기〉 달라이 라마 방한이 우리 사투리
2000년 3월 100여개 불교단체들이 모여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방한운동을 시작한 이래 시작된 방한운동이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2000년 11월에 이어 지난해 2001년 4월과 7월 모두 세차례 방한 일정이 무산됐다. 그리고 올해 11월 다시 한번 방한허용을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역시 전망이 썩 밝지 않다. 책임있는 답변을 미뤘었던 정부는 여전히 실망스럽고 궁색한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에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실 방한운동 초기만 하여도 정부가 방한을 불허하는 원인을 주로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보복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많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알면서 이것이 지나친 기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은 달라이 라마가 방문하기 전까지 '중국 분열주의자' 이니 하는 전형적 제국주의 논리를 펴면서 막으려 한다. 그러다가도 달라이 라마가 방문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닫는다. 중국은 대단히 실용적인 사고가(?) 체질화 되어있는 나라이다. 방한초기엔 통상 보복과 같은 경제논리로 만만치 않은 문제로 여겼다. 경제논리

정부의 허구적 논리로 달라이라마 방한 방해하지 말라

수출을 위해 농민도 희생하고,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하면서 국가적 자존심까지 팔았지만 교훈은 '상품수출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른다'는 냉정한 현실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관료들은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경제논리를 펴지

총통이 달라이 라마를 공황에 나가 직접 영접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모두 세차례나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한국은 민간의 초청마저 못 오게 막고 있는데,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는

해 중반이후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그전까지 여론은 답답 성사에 비중을 뒀고,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민족사적 숙원이 하나 있어 정부의 변명을 수긍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 남북문제 역시 정부의 조급함과 단견, 무지의 소산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북한은 대남관계보다는 대미관계를 더 본질적으로 여기며, 또 그보다 더 자극 내부의 권력안정과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양빙을 중국이 체포하고, 이로 인해 북한이 항의사절을 보내는 등 북-중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에 대하여 대북관계를 풀려고 해 우리정부의 행위야말로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한을 불허할 수 없음이 확연히 드러난 지금, 정부는 이제 모든 기존의 논리는 아예 합구하고 있다. 이전 자신들도 정말로 방한을 허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또 못하겠단다. 대통령 선거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흘러면서, 뒤로는 또다시 방한불허의 책임을 불교계,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계종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외교보복, 경제적 국익, 남북문제에 대한 협조. 정부가 차례차례 들어온 방한 거부 명분이 모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방한을 불허하는 정부의 태도를 대해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공업으로, 무지(無明)와 무명의 공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생활속의 밀교

고(苦)로부터의 해탈은 내 마음의 조복에서...

살다보면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미운 사람을 만나게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큰 괴로움이라 여기고 있다. 그 괴로움이 여덟가지 고통(八苦) 중의 하나인 애증고(愛憎苦)이다. 미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큰 행복은 없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또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쨌든 미운 사람이 없으면 좋으련만, 인간사 그렇지는 못하다. 어디를 가나 미운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

자비심, 관용, 사랑을 마음속 깊이 증장시켜 고에서 해탈

로움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간다. 불교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일체만물을 더 본질적으로 여기며, 또 그보다 더 자극 내부의 권력안정과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양빙을 중국이 체포하고, 이로 인해 북한이 항의사절을 보내는 등 북-중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에 대하여 대북관계를 풀려고 해 우리정부의 행위야말로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필자가 정말로 안타깝고, 또 티베트인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3년간 우리정부와 기업이 만든 최악의 국제적 선례 때문이다. 얼마전 러시아가 달라이 라마의 통과비자 발급을 거부한데 이어 최근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에서 열리게 될 국제회의에 중국의 압력으로 달라이 라마의 참석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 나라는 이미 달라이 라마에게서 수차례 방문하였던 나라임에도 최근

어느만큼 보이고 느낀다 불상의 손모양과 자세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사찰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은 특정한 손모양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은 관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손모양은 흔히 인상(印相)이라 하여 그 부처님의 서원이나 공덕 또는 몸소 증득하신 경지 등 결모습만으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서원과 공덕 증득한 경지 표현

손을 그 위에 포개 뒤 두 손가락의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댄 것입니다. 또 항마인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악마의 방해를 물리치신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얹은 자세에서 오른손을 내밀어 손끝을 가볍게 땅에 댄 것입니다. 전법유인은 설법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끝을 서로 맞대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부된 것인 리고 사무와인은 오른손을 펴서 윗쪽을 향해 어깨 높이까지 든 것이고 여원인은 반대로 손바닥을 펴서 아래로 내려드린 것인데, 이것은 각기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과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상의 자세도 여러 가지여서 일반적으로 앉아 계신 좌불(坐佛)과 서 계신 입불(立佛) 이외에 특히 누워 계신 와불(臥佛)이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명상 세계 잔잔한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든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틱낫한은 화가였다면 말을 삼가고,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고 일러준다. 화가 나 다른 사의 마음을 아뜨게 하는 말을 하면, 그 역시 같은 말을 해 둘 다 마음이 아플 것이고, 거울을 통해 본 화난 얼굴은 극도로 긴장해 일그러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과 대화하고 상대방을 연민의 감정으로 대하면 어떤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시 마음을 다스리면 외부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쉽게 화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화를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이 소개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명제가 첫번째다. 부부와 가족, 친구들이 더 이상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 혹은 행동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했다는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두번째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훈련법이 제시된다. 세번째는 호흡, 숨을 들이쉴 때 "안으로", 뱀을 때는 "밖으로"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서 화 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몸의 긴장을 푸는 예너지를 만드는 법. 눈을 감고 빗바닥이나 침대 위에 편하게 누워 바닥에 닿는 신체의 감각 느껴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당신의 영혼을 두드리는 말씀. 고요히 앉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숨쉬고 웃을 때 우리는 참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를 열어 두면 참 자신을 프로그램이 침입하도록...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시끄러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여 파괴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틱낫한 명상은 아주 작은 앉아 있을 곳밖에 필요로 하지 않지만, 대중매체나 싸구려 학문으로 마음속에 주입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다 없애줍니다. -게리 스나이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이로움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푸른 하늘, 햇빛, 아기의 눈망울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깨어 있음에 달려...깨어 있음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매우 풍요로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것은 생을 제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알란 비디너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다. 그 밭에는 기쁨, 사랑, 이해,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분노, 미움, 절망, 시기, 외로움, 그리고 건강치 못한 집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평화롭게 다가와 미소짓게 만드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달라이 라마와 더불어 두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일컬어지는 영적 스승 틱낫한의 깨어있는 삶의 예술.

틱낫한 스님은 누구인가?

틱낫한은 베트남 왕조의 행정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16세에 출가했고, 1960년대에는 반전(反戰)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사이공 정부의 미움을 받았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자 1968년 프랑스를 망명지로 선택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는 프랑스로 밀려온 보트피플의 수용소를 세워 봉사활동에 나섰고, 주로 영문판으로 번역된 저서의 인세 수입으로 낡은 농장들을 매입해서 플럼 빌리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정작 프랑스보다는 10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미국에서 더 높다. 그는 미국 버몬트주에 세운 '그린 마운틴 다라마 센터'와 플럼 빌리지를 옮겨 생활한다.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불교이야기 한 구절의 계승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가족도 부귀영화도 모두 버리고 설산에서 고행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다. 어느 날 불교를 수호하는 제석천이 이 수행자가 과연 도를 이룰 수 있는 바탕과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아주 무서운 살인귀인 나찰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하늘나라에서 설산으로 내려왔다. 나찰로 변한 제석천은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승을 읊었다.



“제행무상(諸行無常)하니 시생멸법(是生滅法)이다. (꽃은 피면 곧 지고, 사람은 태어나면 곧 죽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 한결 같음이 없으며, 이 법칙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생멸하는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진정한 법칙이구나.)

욕탐을 버리고 무소유의 정신이 수행자의 본분

이 계승을 들은 수행자의 마음은 환희로 충만해졌으며 깨달음의 등불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지금 계승을 설한 분은 누구십니까?” 수행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나찰 의 아무도 없었다. “저처럼 얼굴이 추악하고 무서운 귀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계승을 읊을 수 있던 말인가?” 수행자는 나찰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디에서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신 계승을 들었는가? 나에게 그 나머지 반도마저 들려주지 않겠는가? 만일 당신이 나를 위해 계승을 끝까지 들려준다면 평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 달 굶어 배가 너무 고프고 허기가 저 말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드리지요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정 그렇다면 말하지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살덩이를 먹고 사람의 따뜻한 피를 마실 뿐 그 밖의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어찌 하잘 것 없는 시한구절을 듣고자 귀한 목숨을 내어 놓는가?” “이는 마치 흰 짐고깃을 주고 보배로 만들어진 새 그릇을 얻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무상한 몸을 버려 금강석처럼 굳센 몸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 계승의 나머지 반을 들어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나찰은 나머지 계승을 읊기 시작했다.

“생멸법이(生滅法已)이면 적멸위락(寂滅爲樂)이 아니라 (살고 죽는데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면, 쓸데없는 욕심이 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고요하고 고요한 진정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계승을 다 들은 수행자는 더욱 깊은 환희심이 솟았다. 나머지 계승을 들려준 나찰은 곧 바로 수행자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행자가 제대로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귀중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므로 이 계승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하여 계승의 뜻을 깊이 새기고 나서 버림과 나무와 돌에 “제행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생멸법이면 적멸위락이 아니라”는 계승을 적어두었다. 그리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약속한대로 나찰에게 몸을 던지려 하였다. 이때 산신이 수행자에게 물었다.

“수행자여 그 계승에는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이 계승은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생애 걸쳐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몸을 버리면서까지 이 계승을 얻고자한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신에게 말을 마친 수행자는 마침내 나찰을 향하여 몸을 던졌다. 그러나 수행자의 몸이 땅에 떨어지지도 전에 나찰은 다시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행자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이를 지켜본 모든 천신들은 수행자의 지극한 구도정신과 서원에 감복하여 수행자의 발아래 엎드려 예배하였다. 위 설화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설산동자로 수행하며 설산대사라고도 불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교 에세이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라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수많은 번뇌와 유혹이 새어듭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것도 알고 보면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허술하게 이은 지붕으로 비가 새고, 기초가 부실하면 벽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집니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져도 해를 입지 않지만 상처 난 손으로 독을 만지면 독이 온몸으로 퍼져 죽고 맙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 내 삶이 부실하게 되고, 독에 중독되고 맙니다. 잘 이은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사뭇 욕망과 집착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려 할 때, 게으름이 득보처럼 번지러할 때, “아직은 관망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그 근본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어 더 이상의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성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몸은 빈 병처럼 보고 마음은 성처럼 든든히 있게 하라. 지혜로써 악마와 싸워 승리를 지키고

다시 잃는 일이 없게 하라. (범구경) 이것이 위대한 승리자이신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성을 든든하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마음깨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필요

“너희들은 마땅히 생각을 거두어 집중하여야 한다. 만약 사색의 집중을 잃으면 온갖 공덕을 잃으려니와, 만약 집중의 힘이 강하면 오욕의 도둑 가운데 들어간대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생각의 집중을 잊지 않



양동호 법사
는 일이라 한다. <유교경>

우리는 한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 감미로운 음악이나 소리를 듣거나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부드럽고

편안한 감촉을 느껴거나 황홀한 공상 등을 하게 되면, 관심과 애착이 생겨서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포기하게끔 하는 우리들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감각 대상들을 육취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온갖 자극과 유혹으로

마음의 집중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적이 먼저처럼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게 놔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잡념 생각들을 거두어 정신을 집중하라고,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집중하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은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은 오로지 그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 길을 갈 때는 길을 가는 것에,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를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순간 순간을 절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의 집중이고, 참선이고, 삼매입니다.

옛 선사들은 수마(睡魔:졸음)를 물리치고 화두에 몰두하기 위해서 턱 밑에 아주 예리한 칼을 꽂아놓고 참선을 했다고 하죠. 우리들은 늘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턱에 칼을 꽂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에 틈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 틈으로 악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 다. 그리고 바른 믿음과 합당한 정진과 날카로운 지혜로 무장해서 악마의 무리를 잘 막아내고 과감히 무찔러야 할 것입니다.

정보 다이제스트

장기간 음주 근육 손상시켜

오랜 기간 술을 마시던 간(肝)은 물론이고 온몸의 근육도 손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abc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프리디 박사는 만성 알코올 남용으로 손상되는 곳이 간과 뇌 정도인 것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알코올성 골격근 장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프리디 박사는 장기간 음주는 골격근 뿐 아니라 결국에는 심근(心筋)과 위장의 평활근(平滑筋)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프리디 박사는 장기간 음주로 발생하는 이같은 알코올성 근증(筋症)은 아주 흔하고 또 예방과 치료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학 교재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유 마시면 살 빠져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미국의 한 영양학자가 “우유를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30일 리더스다이제스트 최신호에 소개된 미국 테네시대학 영양학과 장 마이클 지벨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 치즈 등 낙농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비만 확률이 6분의 1로 낮아진다.

실제로 식사량을 하루 500칼로리씩 줄인 상태에서 6개월간 하루 3-4차례 우유 등 낙농식품을 섭취한 실험그룹과 가능한 낙농식품을 먹지 않은 대조그룹을 관찰한 결과, 실험 그룹의 체중이 평균 8.6kg 감소한 반면 대조그룹의 체중 감량은 5kg에 불과했다.

메일, 당뇨합병증 예방에 효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김운숙 박사팀은 23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과 생약제 등을 실험한 결과 구충제·혈압강화제·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밀 추출물이 당뇨합병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당뇨병 합병증은 비효 소적 반응인 단백질 글라이케이션이 계속 응축되면서 당산화물이 형성돼 나타난다”며 “85종의 농산물·생약제 및 향신료로부터 뽑아낸 추출물 중 글라이케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한 결과 메밀 추출물이 가장 뛰어난 억제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당뇨병 합병증은 당의 변성물(AGE)이 눈의 수정체, 혈관 및 신경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증세로 그동안 아미노구아닌이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다·장기복용시에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

심장마비 재발 막으려면 담배 끊어야

첫 심장마비를 일으킨 뒤 3년 동안 담배를 참지 못한 사람은 담배를 멀리한 사람에 비해 2차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워싱턴대학 심혈관질환 연구실의 토머스 리 박사는 내과전문지 ‘내과 연보’ 최신호(9월17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1

차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환자 2천6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첫 심장마비 후 담배를 오래 끊을수록 재발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 박사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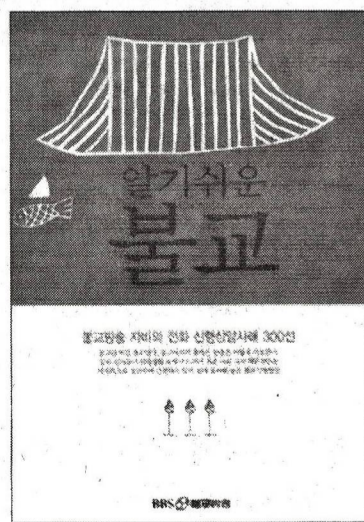
첫 심장마비 후 담배를 일단 끊은 사람의 심장마비 재발률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과 같아지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금연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건강도 병도 배우자 늙는다

부부간에는 결혼 주례사처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보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배우자가 건강하면 같이 건강하고 배우자가 아프면 따라서 아픈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사회과학과 의학’ 9월호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이 아주 좋은 50대 초반의 남자가 ‘건강이 그저 그런’ 아내를 두고 있을 확률은 5%, ‘건강이 나쁜’ 아내와 살고 있을 확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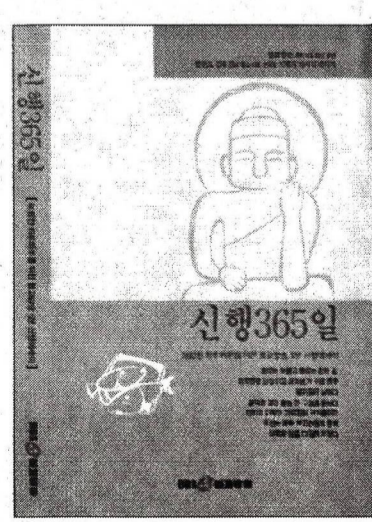
불교방송 자비의전화 신행상담사례 300선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 불자들이 신행생활 속에서 느끼기 쉬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불교신행입문서

신국판 344쪽/값 10,000원 초판 22쇄 발행

보람찬 하루를 위한 불교방송 5분 신행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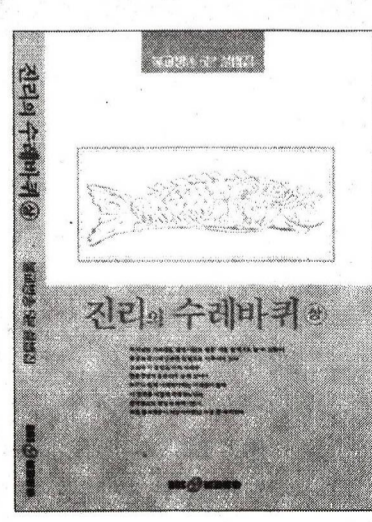


불교방송 개국이후 10년 동안 벨런드 김용림의 목소리로 전해준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길, 자칫하면 넘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하루, 불자들은 날마다 활짝한 경건 말씀 한 구절을 듣는다.

신국판 399쪽/값 10,000원 초판 3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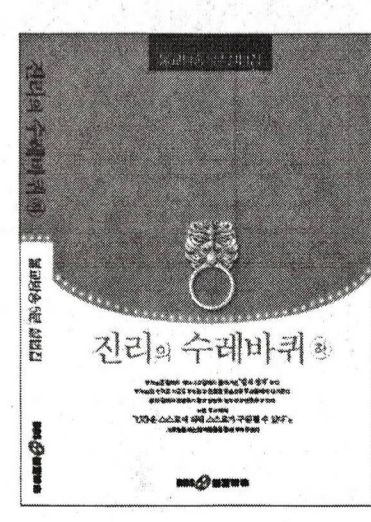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각현 대운 덕진 명성 무비 범등 법성 법장 법진 설봉 성열 성타 송강 송산 송암 시명 운곡 월운 이두 일면 정권 정안 정우 제원 중훈 지거 지안 지원 지현 청화 현근 현능 현성 혜담 혜봉 (가나다 순)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5쇄 발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각명 경암 대우 도해 돈연 동봉 마성 법산 범일 벽과 삼중 선일 선혜 성염 성운 암도 여연 영담 오연 원명 자유 정락 정인 중하 중후 지광 지명 지옥 지원 지홍 철우 태호 현각 혜관 혜은 (가나다 순)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2쇄 발행

총지논단

심인진리 (心印眞理) ②

일체중생의 고통해탈위한 커다란 서원 세운 원정 성사

본 글은 종조님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정원에서 종조님 관련자료를 재정리하며 제공해준 원고입니다. 난해한 문구가 여러 군데 있으나 가감 없이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원문 속에서 교화용 서적을 최우선으로 간행하기 위해 다급하게 준비해오셨던 창종 당시의 상황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글의 내용에서 구구절절 일체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셨던 대비원(大悲願)과 애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를 연재해나갈 계획이오니 원정 대성사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 많고 빈궁한 이가 많으며 멸문(滅門)한 이가 적지 않는지라.

진각님이 이에 대한 법을 설하시되 천지(天地)는 넓고 크게 밝으며 일월(日月)은 넓고 길고 맑으며 시(時)와 해는 좋고 아름다워서 진실로 다투어 다투지 않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처방을 호도하는 사된 스승을 믿고 만선에 몰으며 아귀에 잘하고 재앙을 불러서 고통을 만나니 이와같은 사람은 천리(天理)와 지리(地理)와 거역하는 자라. 광명한 일월을 등지고 항상 어두운 집에 살며 바른 도(道)와 넓은 길을 버리고 항상 가시밭과 사된 길을 걸어서 어찌 전도(顛倒)하지 않으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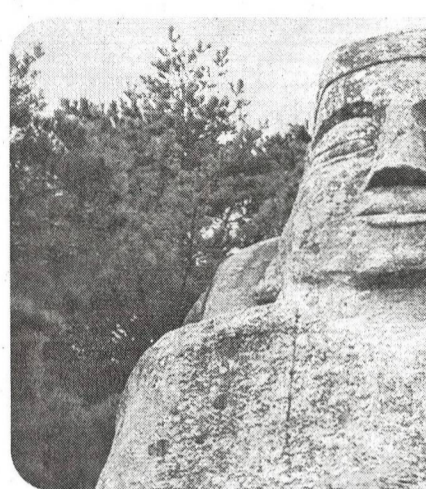
보살은 마땅히 알지니라. 임심해서 칠 일이라도 정기심공(定期心工)하게 되면 애기도 쉽게 낳고, 크게 좋아서 지혜가 총명하고 복록(福祿)이 구축하며 횡요(橫夭)에 이르지 않으니라. 임종시에 심공하게 되면 고통은 하나도 없고 행복은 무량하니라. 각자(覺者)는 마땅히 알지니라. 날이 좋은 날이며 달이 좋은 달이며 년이 좋은 해니라. 진실로 사이와 틀이 없는 것이니 곧 유행으로 장사(葬事)하고 망령을 위해서 심공을 시작하여 칠칠을 마치게 되면 현재자신의 행복이 무량하여서 문호는 영화롭고 사람은 귀하게 되며 항상 깨달으므로 오래 살다가 명이 다하는 날에 또 진각(眞覺) 그대로 가게 되니라.

각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묘지를 선정할 때 좋은 곳을 묻지 말고 사람이 사랑하고 기꺼이 하는 것은 귀신도 사랑하고 기꺼이 하게 되는 것이니, 곧 칠일을 정해서 심공을 마치고 묘지를 쓰고 상석(床石)을 올리면 영원토록 재장(災障)은 없고 집은 부(富)하며 사람은 흥(興)해서 행복이 무량하니라. 여래 진각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설하시되 '나는 것도 좋은 날이 될 것이며 빈궁(貧窮)도 좋은 시(時)가 되니라. 나고 죽음을 위해서 심공하면 달이 좋은 밝은 달이며 년이 크게 좋은 해가 되니라. 유행과 심공으로 장사(葬事)하면 영화가 만대로 창성하니라' 하시니 그때에 많은 사람이 다 마음을 열고 뜻을 알아서 사된 것은 버리고 바른 데에 돌아와서 불법(佛法) 연분(緣分)을 얻어 미혹을 끊고 지혜가 밝아져서 심인(心印)을 깨닫게 되었니라.

보살은 마땅히 알지니라. 혼인할 때 먼저 궁합을 보고 뒤에 좋은 날을 가려서 장가들고 시집갔는데도 부귀한 이는 적고 빈궁하며 생리사별하는 이가 많으므로 여래 진각께서 이에 대한 법을 설하시되,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며 물은 음이요 불은 양이며 사나이는 양이요 부녀는 음이니 천지 기운이 합해서 초목이 나고 일월이 서로 바꾸어 움직여서 사시(四時)와 팔절(八節)이 밝고 수화(水

화)가 서로 받들어서 일체만물이 익고 넘나쳐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자손이 일어나니 이것은 다 하늘님의 뜻이요 도(道)이며 자연한 이치이며 세상의 법이 되니라.



心工해서 깨친 心印은 행복과 광명으로 온다

포가 없게하고 일곱 불선(不善)한 것들이 화도(化導)하는 사람을 침노하지 못하게 한다.

각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관(官)에 나아가고 직위에 오르거나 입학하여 학기에 오르거나 입학할 때에 먼저 필일 심공하게 되면 크게 거리(去利)하고 항상 선신(善神)이 두호하게 되어서 복록이 무량하니라. 만약 중생이 정법을 믿지 않고 항상 사된 것을 믿고 살다가 이해인을 듣고 성신(誠信)하게 되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살아서 고통을 받지 않으니라. 이와같이 심공하고 칠년을 보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복락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심공한 결과가 이

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 보는 데 착한 것보다 보지 않는 데 더 착하며 다른 교(教)에 종지를 바꾸지 않게 되면 공의(公義)를 깨달아 귀하게 된다. 이리하여 내 잘못을 알게 되면 곧 참회하게 되며 남의 그릇 것을 보지 않게 되며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

게 되며 부모와 스승에 수순하게 되며 가족과 부하들과 아래 사람을 친근히 하게 되며 사회 국가 공중생활에 특히 질서를 세우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지 않게 되며 진각님의 은혜 속에서 스스로 정공회사 할 줄 알게 되며 국민의 의무를 알아서 스스로 질서와 안보와 교육을 지우로 하게 되며 몸이 병고나 떠나게 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며 의식주에 곤란을 받지 않게 되며 시비와 소송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우주에 가득한 전기를 집집마다 사용할 시설이 되어 있어 전기를 다 통해서 있다하더라도 그 집에 스위치를 열면 그 집에 불이 들어오지만 그 집에 스위치가

달치면 그 집에 불이 꺼질 것이며 불 꺼져서 불이 있어도 불을 당겨가는 도화선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폭탄은 폭발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법계 진각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사람에게도 계시고 물에도 계시며 불에도 계시고 쇠에도 계시며 나무에도 계시고 흙에도 계시며 형상에도 계시고 소리에도 계시며 뜻에도 계시고 물질에도 계시며 돈에도 계시고 일에도 계시며 행하는 모든 것에도 계시고 전쟁에도 계시며 평화에도 계시고 심공하는 데도 계시며 장사하는 데도 계시고 어디라도 빈틈없이 차지하고 계시어서 없는 곳이 없으며, 스위치와 같고 도화선과 같은 자기의 마음이 꺼져서 심인되고 자기의 마음이 꺼지지 못해서 심마는 밝고 밝은 데 따라 천당도 극락도 되며 심판도 때 되고 지옥에도 떨어지지 되나니라. 전기가 밝고 밝지 않는 것이나 폭탄이 터지고 터지지 않는 것이 스위치가 도화선의 작용에 있다. 그러므로 법계 진각님이 천당으로 보내고 극락으로 가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열면 전기가 밝아지게 되어 있고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폭탄이 튕림없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선악을 공의로서 다스리게 되는 법계 진각님의 경계 안에서 자기의 마음이 지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심공(心工)해서 깨친 심인(心印)은 행복과 광명의 스위치가 되고 깨닫지 못한 심마는 불행과 멸망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법계는 이와같은 선악 존망의 염연한 기관이 서 있을 뿐이지 흥하고 쇠하게 되는 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가는 것이요, 법계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되는 까닭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여성의 건강은 건강한 자궁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에게 자궁은 중요한 기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궁의 건강관리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여성병(부인병)은 크게 월경병, 성기병, 임신병, 산후병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방에서는 자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어혈과 노폐물이 쌓여 각종 부인병을 유발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부인병은 자궁과 관련된 질병이 많아 자궁이 건강할 때는 여성의 피부와 정신도 맑지만 자궁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허복통, 요통, 골반통, 비만, 기미, 전신통, 두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생리통과 자궁근종을 비롯하여 각종 부인병이 생기는 생활 습관적 원인으로 크게 세가지를 들린다. 첫째, 야근 야근, 둘째, 스트레스, 셋째, 자궁의 기온을 못지 않게 하는 각종 스트레스,

출산이나 제왕절개 등으로 인한 자궁 내 상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원인을 제거해 주면 어느 정도 부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통인 경우 여성의 절반은 매달 생리통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진통제를 복용하지만 그 때뿐이고 점점 내성이 생기기 보편 잘 듣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혼여성뿐 아니라 결혼 후 출산을 한 여성들까지도 괴로움을 주는 생리통을 한방으로 근원을 치료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리때가 되면 배가 아프고 유방이 팽창하여 아픈 가벼운 생리 증후군을 경험한다. 하지만 심한 경우 속이 메시거리고 구토가 나기

도 하며 야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30대 후반의 주부인 이지영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태반이 깨끗하게 배출되지 않았다. 그 후 생리 시작과 동시에 이틀간은 진통제를 하루에 10알을 먹어야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생리 중에는 덩어리가 많고 색이 검으며 평소에는 미색의 분비물이 항상 흘러 고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랫배에 통증이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피부에 기미도 끼기 시작해 진짜로 큰 병이 아닐까 싶어 걱정하는 케이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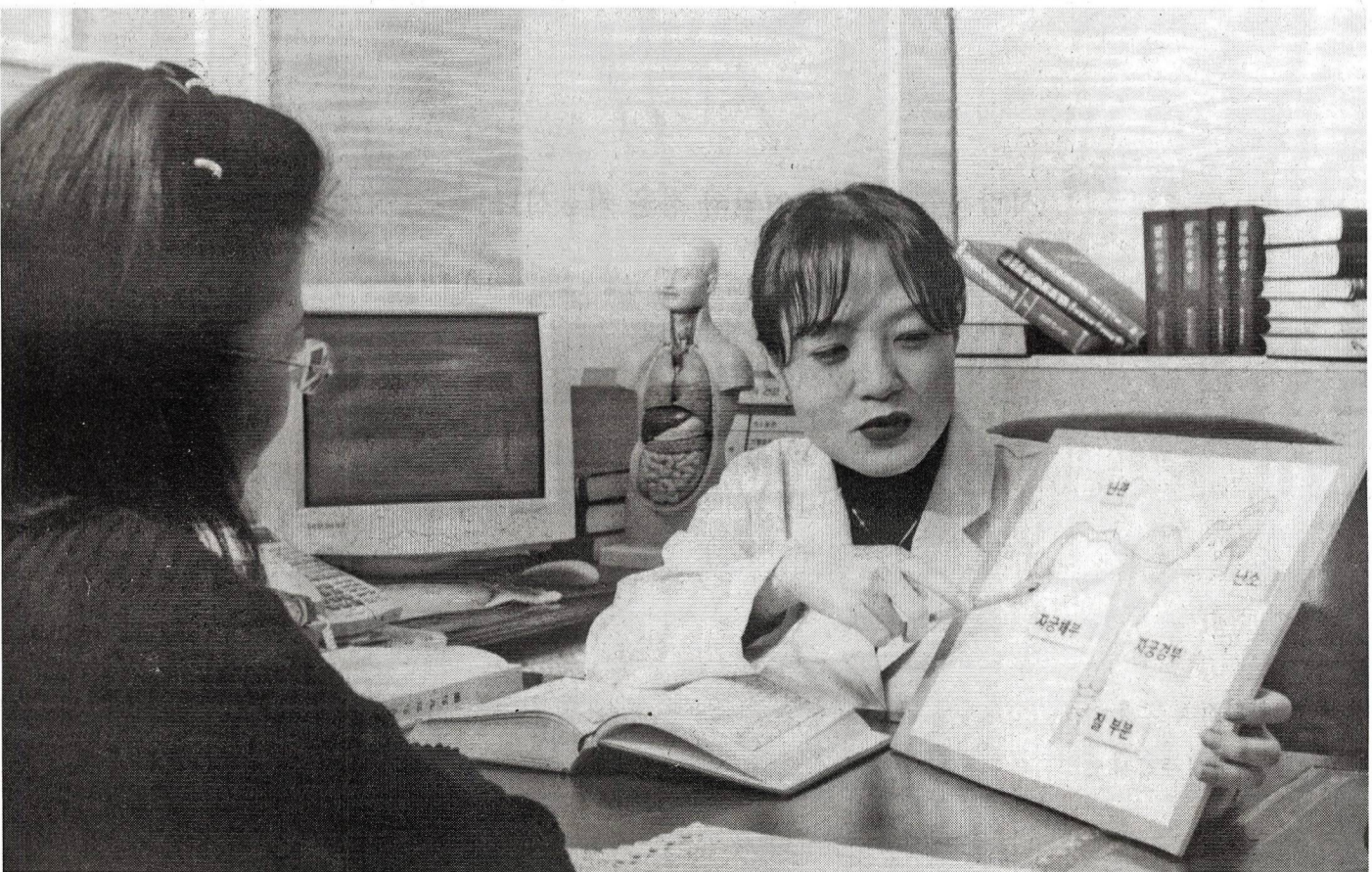
진찰결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심장에 열이 많았고 간의 기운이 울체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전신에 어혈이 가득 차 있었다. 초음파

상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자궁이 심하게 후궁되어 있어 통증이 더욱 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찬기운을 없애주는 현부탕가장방과 좌제요법을 처방했다. 전에도 장기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라 한약에 대한 불신이 컸지만 보름간 복용한 후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어 통증도 거의 없어졌으며 초음파상으로도 전에 보이던 어혈도 거의 없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생리중 덩어리도 거의 없었고 색도 맑아졌다. 예전처럼 몸을 차게하는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 커피, 기름기가 많은 고기 등을 삼가면 어느정도 여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찜질팩 등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체의 단련과 기의 순환을 돕는 조깅, 걷기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개선과 더불어 평소 자궁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진각님

여성美 한의원美



안녕하세요? 여성 美 한의원 원장 조선희입니다.

그동안 미혼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질환에 관한 전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연구개발하며 노력하는 모습과 깊이있는 진료를 위해 새로운 장소에서 여성만을 위한 한방클리닉 "여성美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성병(부인병)전문 한의원 개원을 계기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진단 및 치료프로그램(좌약, 좌훈욕, 생기활혈탕, 온열침, 비만침, 이침 등)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135-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6-1 신라빌딩 3F
Tel (02)545-0072 Fax (02)545-2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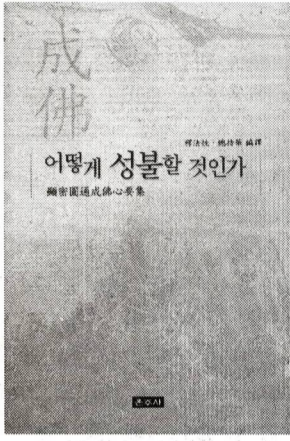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새롭게 개원하는 "여성美 한의원"에서 항상 편안하고 쾌적한 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평 일 : 오전 9시2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여성전문 한방클리닉 여성미한의원
대표원장 조선희

함께 읽는 佛書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는 제목 그대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수행자들을 위한 수행지침서다. 밀교의 진언행과 핵심 진언에 대한 의미와 공덕 수행법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불교총지종 총리원장을 역임했던 총지화 스승님과 석법성 스님이 편역한 이 책은 《신수대장경》 권 46에 수록되어 있는 논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편역한 것으로 한국 불교 의식경전의 대명사라 할 만한 《천수경》이 원문의 내용에 앞서 “정구업진언 수수리 마하수리...”의 진언으로 시작하여 진언으로 끝나는 비법을 밝히고 있다.

총지화 스승님은 특히 “선종 중심의 한국불교에서는 밀교를 터부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짙지만, 역사적으로도 한국 불교에는 밀교적 요소가 들어와 접목되어 각종 의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독송하는 많은 경전에도 밀교적 요소가 다분히 남아 있다”며 “불교수행에 있어 진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고 하였다.

우편다따 스님/ 불광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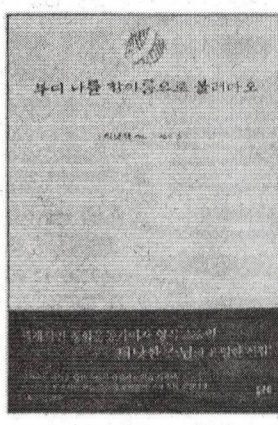
2002 라몬 막사이사이상 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을 수상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세상이야기가 나왔다.

이 책은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통해 미래를 보는 법륜스님의 통찰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게 한다.

전 지구적인 과제인 환경문제로부터 21세기 벽두의 화두인 통일문제, 그리고 평화, 복지, 노동, 과학 등 변화의 조짐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아름다운 평화, 2장 통일로 가는길, 3장 깨달음과 새로운 문명, 4장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5장 노동해방의 길, 6장 과학과 종교의 한계를 넘어, 7장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8장 미래문명을 이끌고 갈 새로운 인간들 8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의 창조적 삶을 위한 초석을 제공해 준다.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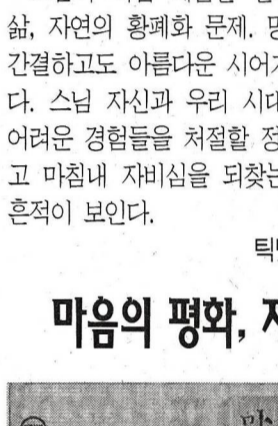
탁났한 스님 대표 시 100편이 수록된 책이 발간되었다. 평화운동가, 불교명사의 탁월한 스승으로 세계적 고승인 탁났한 스님이 40여년 동안 쓴 시들을 모았다.

스님이 편낸 수십권의 저술 가운데 유일한 시집을 요즘 탁났한 스님에게 꼭 빠져 있는 이현주 목사가 번역하여 펴냈다.

스님이 직접 체험한 전재의 상흔과 세계민들의 삶, 자연의 황폐화 문제, 광명 생활의 쓰라림 등이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시어가 되어 진솔하게 다가온다. 스님 자신과 우리 시대가 관통한 여든 기억과 어려운 경험들을 처절할 정도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마침내 자비심을 되찾는 기회로 되돌리려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

탁났한 지음/ 도서출판 두레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학



2002 라몬 막사이사이상 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을 수상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세상이야기가 나왔다.

이 책은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통해 미래를 보는 법륜스님의 통찰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게 한다.

전 지구적인 과제인 환경문제로부터 21세기 벽두의 화두인 통일문제, 그리고 평화, 복지, 노동, 과학 등 변화의 조짐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아름다운 평화, 2장 통일로 가는길, 3장 깨달음과 새로운 문명, 4장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5장 노동해방의 길, 6장 과학과 종교의 한계를 넘어, 7장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8장 미래문명을 이끌고 갈 새로운 인간들 8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의 창조적 삶을 위한 초석을 제공해 준다.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부처님께서 살던 당시의 인도에는 "육사의도"가 존재했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산사야비라지자"라는 사람이 이끄는 학파가 있었답니다.

자, 사리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아요?

어... 추워지네.

육사 의도가 뭐예요?

6×4=24가 아니요?

글:그림/정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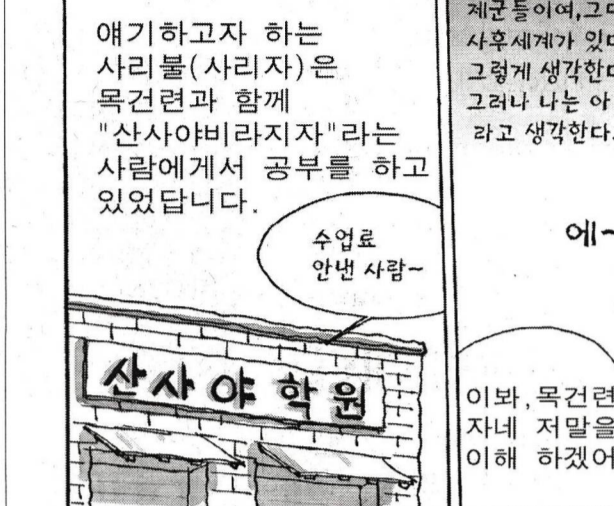
제군들이여,그대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있다고 하지 않겠노라. 그와는 다르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것이 아니라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에... 머리가 곧 터질것 같아요.

하하하... 이처럼 산사야는 개변론자였답니다.

전혀 못알아 들겠어.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고 영뚱한 개변이야.



얘기하고자 하는 사리불(사리자)은 목건련과 함께 "산사야비라지자"라는 사람에게서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수업료 안낸 사람~

이봐, 목건련. 자네 저말을 이해 하겠어?

에~

험!

전혀 못알아 들겠어.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고 영뚱한 개변이야.

이봐, 목건련. 자네 저말을 이해 하겠어?



모든것은 다 의심스럽다. 제군들이여, 모든것은 의심 덩어리다.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운 선생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겠군요?

학~!

그건.. 대답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목건련, 산사야 선생님의 가르침은 옳은것 같지가 않아..

그래, 사리불. 우리 참다운 스승을 찾아 보자.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참다운 스승을 발견하는 사람이 연락을 하기로 하지.

앗! 저기 오는 저 사람은..



사문이시여, 그대는 누구시며 그렇게 단정하고 편안한 용모를 갖추고 계신지요?

그리고 어느분의 가르침을 받고 계신지요?

소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설시"라고 하는 수행자입니다.

학!



일체의 제법(諸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며 부처님께서 그 인연을 설하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리불과 목건련은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사람이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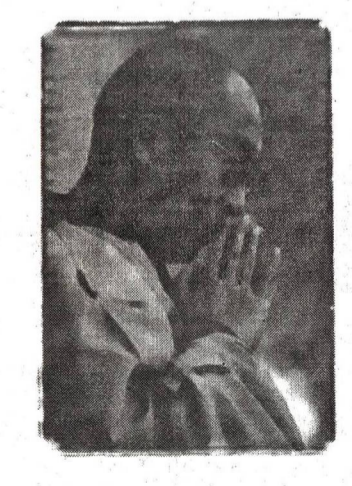
인연이라는 말을 듣고 불교에 귀의한 사리자는 공을 제일 잘 이해한 해공제일, 지혜제일 사리불이라고 불리지요.

으악! 깜짝이야. 소나기 오려나 봐요.



정수일:octagonp@hanmir.com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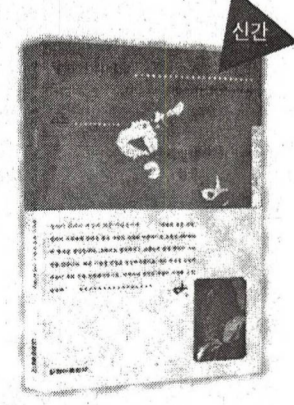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강주현 옮김 신국판 변형 값 8500원

“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리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 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 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연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짙은 조언들을 담았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실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제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봉행

세계평화와 환경보존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



이번 대회에서는 3국 불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불교사에 입각한 평화유지노력과 기원, 환경보존을 위한 3국 불교계 출신의 지 고취, 교류분야별 3국 합의사항 적극 추진을 위한 연대노력, 대회를 통한 인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의 구체화 및 실체화를 목적으로 열린 제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28일부터 29일 양일간 중국 104인, 일본 56인 한국 1000여명이 참석하여 봉은사와 롯데호텔에서 봉행이 되었다.

지난 1995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한중일 불교지도자대회 이후 한국, 일본에서 매년 개최되었으며 3차례의 3국간의 지속적인 불교우호교류를 위한 상설기구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후 매년 3국의 교류위원회는 문화, 학술, 수행체험, 환경보존, 인류 평화유지, 인적교류 등 연대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제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불교환경사건전진대회와 세계 평화합동기원법회 한중일 국제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방지하 스님의 인류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 중국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취스님의 불교와 세계평화, 일중한국제 불교교류협회 부이사장 야스다에이 인 스님의 인류평화의 창조는 보살행의 실천으로라는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편 법공 불교총지중 총리원장과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들은 이번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하여 3국 불교간의 유대강화와 우호증

진 및 불교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불교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불교총지중 법장원 연구원 화령은 "세계 평화를 위한 불교도의 자세에 대하여"라는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평화와 환경보존을 위한 불교도들은 수행자의 참 본분을 지켜 내적 수행과 외적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은 금강대학교는 3700여명의 종합강의동과 3500여명의 기숙사 2개동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금강대학교 한 관계자는 "준공식 이전까지 내부 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이 시설들에 대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결함이 없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태종 금강대 11월8일 준공

천태종이 교육숙원 사업에 하나인 금강대학교 준공이 11월 8일 거행된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계룡산 국사봉 아래 3만 7000여평의 대지에 자리

잡은 금강대학교는 3700여명의 종합강의동과 3500여명의 기숙사 2개동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금강대학교 한 관계자는 "준공식 이전까지 내부 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이 시설들에 대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결함이 없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보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계지도자들과 정관계인사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준공행사를 봉행 할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의 설립인가 시기는 9월말 교육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10월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칼라차크라 대법회

오스트리아 1만 불자 세계평화 발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주재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 입문' 행사가 오스트리아 스타이어라주그라츠에서 12일간 거행되었다.

71개국 1만여 불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참석한 이번 '칼라차크라 입문' 행사는 티베트 밀교 최고의 법회로서 세상의 갈등을 줄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불자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열렸다.

달라이라마에 의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불교 의식인 칼라차크라는 범어로 시간(Kala)과 (Car)의 합성어로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뜻으로 전 세계 티베트 불교 신도의 기도와 염원이 실려 있다.

정문제도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자"고 제의했다.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준공

양·한방 협진 최첨단 시설 완비



천만 불자와 동국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불교종합병원 준공식을 지난 27일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병원현장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사부 대중 5천여명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하였다.

불교병원의 특징은 불교교리에 입각한 인간중심의 건축, 국내 유일의 저 체온실 등 최첨단 시설, 호텔처럼 안락한 환경, 병원정보화의 결정체 양·한방 협진 시스템등이다.

'인간중심적인 병원'을 기치로 내



서울 경인교구 아우라지 방문

지난 9월 16일 태풍 루사의 수미가 핏칠고 간 강원도 정선군을 방문하여 김원창 정선군수에게 담요 2백채(시가 5백여만원)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서울교구장 관성사 주교 해정, 총지사주교 법동, 사회복지재단 서동석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범어사 불교문화 축제

승무, 찬불가, 바라춤 등 문화공연

지난 24일 부산 범어사에서 3000여 사부대중이 모여 열린 불교문화 페스티벌의 열기가 가득하였다.

2002 부산합창음악회 개최를 기념하

기 위해 부산합창음악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범어사가 주관해 거행하는 불교문화페스티벌에 승무와 법고, 살풀이, 찬불가 등 한국불교문화의 진수를 알리는 아란법석이였다.

국악인 박경량, 정률스님의 부처님 찬탄하는 가곡과, 동다승문화원은 전통다도를 시연하여 많은 외국인에게 관심을 모았다.

또한 수덕사 법민스님의 달마도 시연, 사물놀이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찬불가 공연도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중일 '무차선' 대법회 개최

한·중·일 3국의 대표적 선승들이 모여 선문답을 주고받는 국제 무차선(無遮禪) 대법회가 오는 10월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무차선 법회는 출가자와 재가자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불법을 논하는 자리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선사를 모시고 문답을 주고받으며 불성(佛性)과 참나(我)를 찾는 드문 기회이다.

3차를 맞는 이번 대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서용(西翁) 스님과 대구 동화사 금담선원 조실 진제(眞際) 스님을 비롯 중국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淨慧)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과의 대표 종현(宗玄) 스님 등이 참석하였다.

재가연대 대학생 불자 불교의식조사

계율 강조로 교단의 청정성 강조

대학생 불자들의 74.7%가 우리 불교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격월간 「참여불교」(9·10월호)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대학생 불교동아리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분의 2가 교단의 불건전한 운영, 승려들의 청정성 저하, 재가불자들의 미흡한 활동 등을 이유로 불교계 현실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출가자들의 음주에 대해 응답자

의 과반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으나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도 29.0%에 이르렀으며, 육식에 대해서는 60.7%가 '적극 허용 또는 어느 정도 허용'을 선택, 세대변화를 반영했다.

다만 출가자들의 고급유형층 출신이나 화투·포커 허용에는 각각 66.9%, 56.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생 불자로서 졸업 후 불교계에서 종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답이 60.8%에 달해 2년 전의 53.1%를 웃돌았다.

조계종 "진각종 비하 유감" 표명

원택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세계밀교의식시연법회가 열리던 진각종 통리원을 방문하여 효암 통리원장에게 정대 총무원장의 진각종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진각종통리원측이 밝혔다.

통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택스님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진각종 관련 발언이 진각종과 종교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종단간 현안 문제인 위태대의 균순양성학교 지

건 불교병원의 가장 큰 원력은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환자들이 신체적 고통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禪센터와 환자 치유법회를 여는 법당도 마련되었다.

27,626평 부지에 대지 8,885평, 건평 3,041평 양방 800베드, 한방200베드 등 총 1000병상을 갖춰 강북 지역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10년간 불교인구 3% 증가

은기수 박사, 심포지엄에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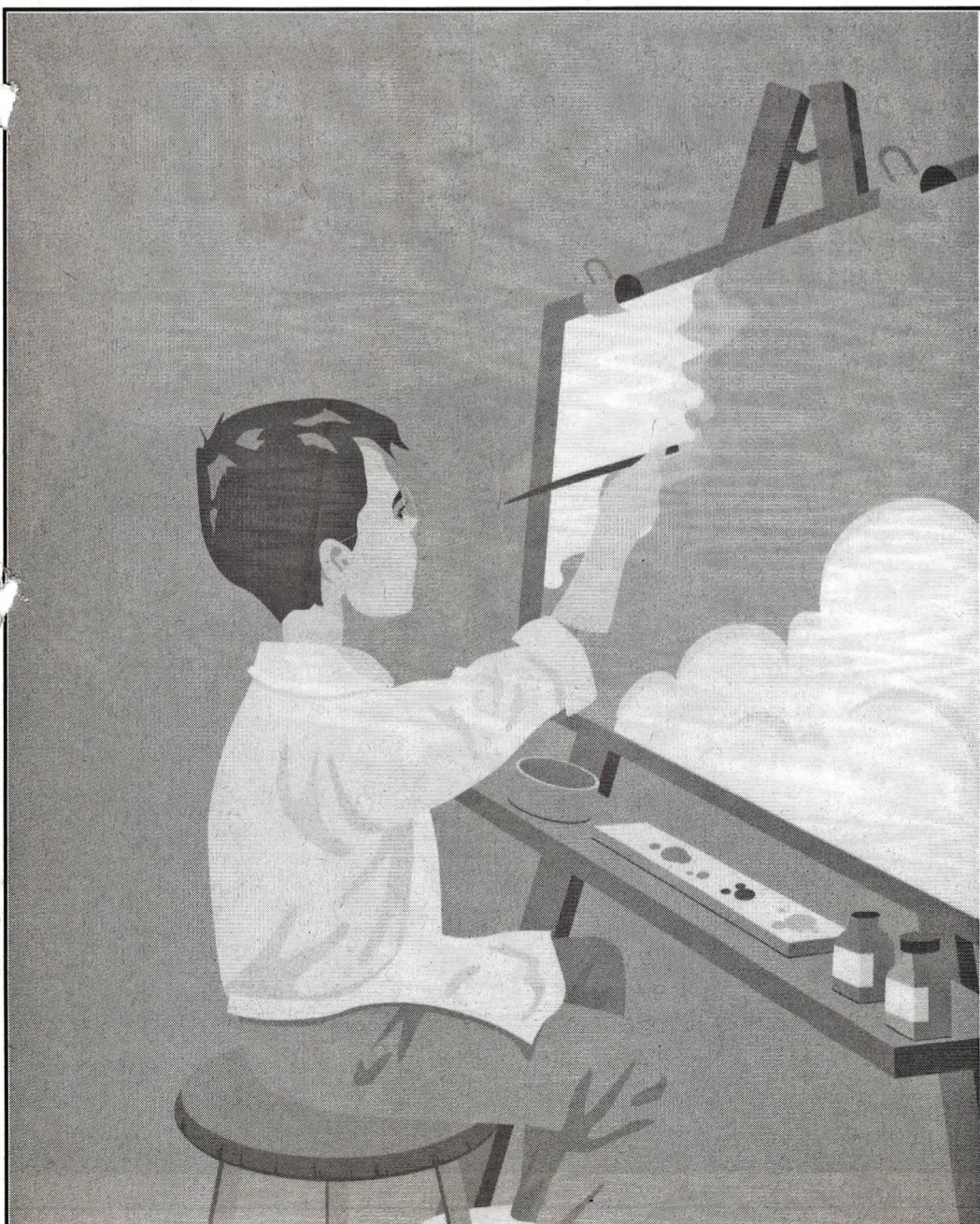
한국 불교인구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박사는 지난 9월11일, 통계청이 주최한 한국의 인구와 주택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85-95년 우리 국민의 무종교 비율이 남자 7.3%, 여자 7.6% 각각 감소하였고 불교인구는 약 3%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개신교 또한 불교와 비슷한 약 3%의 신도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체 종교인구 비율에서는 19.6%로 24.9%인 불교에 여전히 5.3%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종교분포에 있어 불교는 50대 34.9%에서 개신교는 20대 미만 23.0%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주목할 사실은 불교와 개신교 모두 10년 전에 비해 30대 미만의 비율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종교의 연령구조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동림기획/동아상사

(Orient Communications)

대표 修正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인쇄 전문 업체

- | | |
|-------------|--------------------|
| 카타로그, 브루슈어 | 카렌다(일력, 주력, 월력) |
| 리플렛, 팜플렛 | 라벨, 스티카 |
| 전단, 포스터 | 인하BOX |
| 서적(양장장, 무선) | 힐택, 행가 |
| 다이러리, 수첩 | Sample Book |
| 청첩장, 연하장 | 기획, 판촉물, 기타 인쇄물 일체 |

서울시 중구 쌍림동 25-15 삼우빌딩
대표전화 : (02)2279-6123
FAX : (02)2274-8421, H·P : 018-361-9663
e-mail : orient-kim@hanmail.net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안으로는 마음뉘는 불공, 밖으로는 대자비행을 실천해야 참불자!

사바세계에 살포시 내려앉은 관음보살의 모습 환수원 스승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고, 비는데는 무쇠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지극한 신심이 앞으로 계속 번치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져야 하는 마음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기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등의 이유로 기도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신종기도는 거의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기도, 사업의 성공 또는 건강 등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고, 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보살님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교해서 불공 드리는 데도 어떤 분은 성취했다고 기뻐하는데 다른 한 분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보살님들이 마음가짐이 다르므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동근 보름달이 밤하늘에 두둥실 뜨면서 수많은 강에 달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 그 보름달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강에 나타난 달은 밝고 동근데 어떤 강물에는 찌그러진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달은 하나인데,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 다른 까닭은 바로 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대상은 같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비르면 맑고 찬란한 강물에서는 동근 달이 나타나듯이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고 마음이 흐려지면 마치 탁류가 흐르는 강물에는 동근 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소원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도다. 법당에 앉아서 불공할 때의 마음은 한없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법당문을 나서서 순간 몇 시간 동안 불공했던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번뇌 가득한 일반 중생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불공은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순간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그리고 분별심과 이기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생활 속에서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활속의 마음 다스림이요,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의 인연은 각별하다.

스승님은 부산 해운정사에서 우선 불교와 인연이 되었다. 불교에 귀의는 모두가 사연이 있었지만 스승님의 사연도 남들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았다.

몰이 무척 약했던 스승님은 자신의 건강과 집안의 인연은 각별하다.

스승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으니 모든 일에 자신감과 활기를 되찾았다.

정각원스승님은 항상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스승님은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살이 육바라밀다의 행(行)을 성취기 위해 수행하는 6가지 방법으로서 '보시에 대한 공양(供養)'을, '지계에 대한 계율의 배움(學戒)'을, '인욕에 대한 자비의 닦음(修悲)'을, '정진에 대한 선(善)에 힘씀(勤善)'을, '선정에 대한

지금 벽룡사는 사원 불사가 한창이다. 마음뉘는 일이 제일이지만 그래도 여러 교도들이 보다 편안하고 인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리인 것 같아 혼자 몸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신다. 마음의 미혹을 하나하나 벗어나리듯 물하나 풀 한포기 쉽게 곱게 제자리를 찾아준다.

벽룡사 환수원 스승님의 마음 불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불교가 아주 쉽게 와 닿는 것 같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교, 불공이 무어냐는 어리석은 질문에 스승님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하신다.

"우리는 흔히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관조적이고 산속에서나 있는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평등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의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통한 나와 이웃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적극적으로 안이주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 그러한 자비심은 끝없는 자기의 수행과 정진이 바탕이 되어 합니다. 안과 밖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생활속에서 그러한 훈련을 계속하여 자기의 습으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그 래야 법당에서는 부처님이고 법당문 나서자마자 다시 어리석은 중생으로 돌아오는 우를 범하지 않겠지요" 지극히 간단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자기와의 싸움임을 조금만 실천해보면 알 수 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자기를 놓고 - 마음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는 - 다니지 말아야 한다.

웃기만 스쳐도 몇 십생 인연이라고 했는데 부모나 형제나 부부나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무한한 세상에 맺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조금 싫다고 버리거나 미워하면 안됩니다. 또 조금 좋다고 죽거나 살거나 끌려 다녀도 안됩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당생생불생해 버리면 되고 웃어 버리면 됩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바다에 던져 버려야 불보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의 해탈을 위해 많은 불공을 드렸다. 그러나 여 몸에 진척은 없고 하루하루 불공에 회의를 느낄 무렵 정각사 신도로 있던 시누가 정각원 스승님을 뵈자고 해서 법회를 나간 것이 총지종과 인연이 되었고 험난한 스승의 길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진리의 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지식과 견해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견해가 꼭 차 있으니 법문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자 하나 백날 노력한들 헛 고생일 뿐이다"는 정각원 스승님의 법문에 스승님은 한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번거로움을 멀리함(離難)'을, '지혜에 대한 법의 즐김(樂法)'을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천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門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진리의 문에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자신의 몫입니다. 한 발짝 들어온 사람만이 신령스럽게 빛나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빛나고 있으며 들어가지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번뇌와 망상으로 눈을 가리고 영원히 어둠에서 나올 줄 모르고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라고 실천 수행법에 대한 말씀에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쉬운 답을 보고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 우리들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내가 나의 안위와 나 하나만 잘되자는 아집에 지금까지 불공을 했구나" 나의 욕심에 불공을 했구나"는 참회는 정진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가져왔던 욕심을 버리기 위해 새벽, 아침, 오후, 저녁의 사분정진을 한번도 거스림없이 시간을 지켰다.

스승님의 정진에 가벼운 에피소드도 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추위에 도시는 적막과 음산함으로 가득했다. 그날도 새벽정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감고 몸을 단정히 하느라 부산을 떨었으나 불공시간이 늦을 것 같아 머리에 물기를 마르기도 전에 집을 나왔다. 간신히 시간을 지켰으나 물 묻은 머리칼은 추위에 고름이 되어 머리모양이 이상하게 되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새벽불공을 하는데 한 교도가 수건을 건네 주며 '몸을 녹이고 불공하십시오'라는 말에 자신의 몸을 돌아보니 얼굴은 새파랗게 얼어있고 머리는 고드름에 주렁주렁한 모습이 꼭 죽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하루는 '우리 마누라가 분명히 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매일 불공을 갈 것이다'고 생각한 각자님은 스승님을 미행했다. 그리고 먼발치에서 스승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법당까지 들어왔다. 법당에서는 정각원스승님이 법문을 하고 있었으며 그 법문을 듣는 순간 각자님도 제도가 되어버렸다. 그 후 각자님의 어리석은 오해는 풀리고 오히려 더욱 불공하고 기도하려고 적극 도와주셨다고 한다.

그러한 지극한 지심으로 드린 불공의 덕분이었는

"가정에서 여자는 운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움직이는데는 운전사는 특히 중요하합니다. 차를 너무 무리하게 운전하거나 너무 힘부르 하면 차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고장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몸처럼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차는 고장이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사는 바로 여자가며 차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남자는 몇 배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라는 아련한 법문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신다.

환수원 스승님은 항상 강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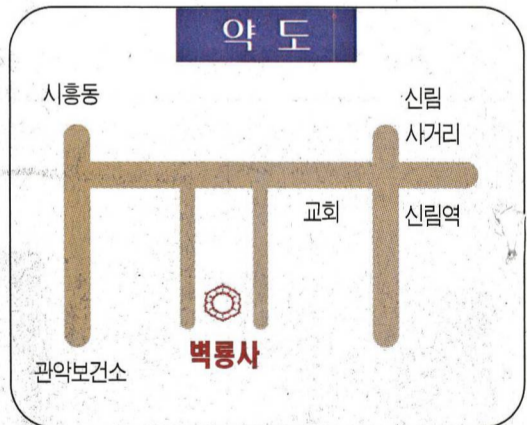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일체중생이 모두 다 자기와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단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불성이 있으며 단지 중생은 그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불성을 깨닫는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바라밀다 등 '육바라밀다'를 잘

환수원전수님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정각원 스승님을 은사로 수행

1983년 전주 흥국사
1984년 일광서원당
1990년 서울 벽룡사 주교
1998년 제 7대 중앙종회의원
2001년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
의원, 전당건설, 교구장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45
전화 (02)899-0211



환수원 스승님은 총기 10년에 총지종과 인연을 맺었다. 후독하고 용맹정진을 중요시하는 정각원 스승님 밑에서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저마다 많은 사연과 인연이 있어 밀교와 인연이 되었지만 스승님